“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내일(30일)부터 교회생활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 것이므로 개인의 형편과 교회생활의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학교 6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졸업여행 중입니다. 기도해주십시오.
- 다음 주일에는 각 역할공동체별 실행위원회를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용신 장로 · 진정해 권사 가정 (감사)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5 호
2023년 1월 2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2023년의 눈을 쓸어내면서

공동체 마당에 만들어진 눈사람이 2주째 녹지 않고 형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가 대단하구나 싶으면서도, 축석 고개를 내려가 보기만 해도 눈덩이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문득 눈치채곤 합니다. 포천의 추위가 대단한거구나!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도, 겨울에만 존재하는 백발같이 하얀 산구릉들은 참으로 볼만합니다. 물론 쓸어내고 밀어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안전에 대한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어른이 되면 눈을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로 느끼곤 한다지요.

생각해보면 무림리 생활 초기에는 겨울에 교회에 오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논밭에 차가 빠지거나 충돌이 있었던 적도 잦았지요. 송구영신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량 몇몇이 밭에 빠지자 뒷차량부터 교회까지 어른들이 줄줄이 달려오셨던 일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콧물이 얼정도로 추웠지만 어릴 당시에는 중간중간 눈싸움도 하고, 밀어낸 눈으로 눈사람도 만들고 하는 놀이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뒷산에서 온갖 마대자루로 눈썰매도 탈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이 오는 것, 특히 펑펑 쏟아지는 함박눈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는 희소식임이 분명했습니다. 어른들에겐 그렇지 않았지만요.

공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도 제설에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눈이 그치길 기다렸다가 어른들이 먼저 나오셔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뚫습니다. 상황을 봐서 생활반경에서 눈을 완전히 밀어냅니다. 평소엔 먼지만 먹고 기대서있던 넉가래, 눈삽, 초록비, 하다못해 싸리비나 일반 청소용품까지 동원되곤 합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하는 작업에 의욕있게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힘들고 싫증나면 눈사람 만들기 등 다른 방향으로 쏙 빠집니다. 그런 모습도 참 아이답고 귀엽습니다. 열심히 한걸음 한걸음 치우는 중간중간에 숨을 돌리면서 몸에 난 열도 식혀줍니다. 그 과정 중에 다시 눈이 많이 내려서 일이 도루묵이 된다면, 그칠 때를 기약하며 헤어집니다. 눈을 치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생생히 목격하면서도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따끔씩 눈을 치우는 시기와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차가운 눈을 상대했기 때문인지 메뉴는 주로 따뜻한 국물이 있는 것이 선호됩니다. 도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준비해 오신 간식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새벽 일찍부터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을 하늘나라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새벽,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각각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값을 치를 때에 모두 합의한 가격 그대로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삶은, 그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을 치우려고 보면 안보이는 사람도 있고,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시작은 같이 했지만 사정이 있어 먼저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은 한 번만 오지 않고, 그때그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보이는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평하기보다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보답없이 말도 없이 도움의 손길에 응답하는 모습들은 세상 사회의 계산법과는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 장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설날도 지나며 1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방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의 새해 첫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렇지 못했더라도 2023년에는 새벽같은 1월 뿐만이 아니라 9시나 12시 등도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포도원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 "
< 미가서 6장 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93 95 88 / 505
기도 : 이어람 집사
성경 : 요한복음 5장 31-47절
제목 : 예수님을 위한 참된 증언들

1. 내용 : 예수님을 위한 참된 증언들 (What)
   1) 요한의 증언<33-35>
   2) 아버지의 증언<36-37>
   3) 성경의 증언<38-39>

2. 의미 : 사람들의 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Why)
   1) 본문에서, 유대인의 불신<38-47>
   2) 시대적 배경, 사람들의 불신(예루살렘 함락 후 20여년 경과)
   3)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20:31>

3. 적용 :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How)
   1)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십시오.
   2) 비그리스도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3)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십시오.

방을 새로 꾸몄다

나의 오랜 숙원사업인 방정리가 시작되었다.

방 하나를 정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쉬는 여유가 생겨서 용기를 내었다. '앞집 청년에게 슈퍼싱글 침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무로 된 것으로 ……,'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무료 나눔 침대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책장과 침대가 하나로 된 사진으로 보기에도 그럴싸한 침대였다. 나는 너-무 좋다고 하면서 공동체의 트럭을 부탁해서 시동을 걸고(추워서 한동안 시동이 걸리지 않았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에 침대를 가지러 두 청년이 출발했다.

같이 가려하는 나에게 집을 치우고 있으라면서 둘이 다녀오겠다는 고마운 말을 해주어서 집에서 열심을 청소를 했다. 그 작은 방에 무슨 물건이 그리 많은지 물건들을 꺼내놓으니 짐이 꽤나 많았다. 여기 저기 옮겨놓고 쓸고 닦았다. 그리고 침대가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크다. 책장까지 붙어있어서 돈을 주고 샀으면 꽤나 금액이 나갈만한 침대였다. 어찌어찌 힘들게 책장을 세우고, 침대를 펼치니 방 모양이 잡혀간다. 마음이 뿌듯하다. 저녁도 못 먹고 도움을 준 이들에게 너무 감사했다.

용기를 내서 이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올해 사랑방의 생활표어(베드로전서 4장 8-9절 말씀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때문이기도 하다. 방을 엉망으로 해 놓아서 동생이 와도 쉴 곳이 없었는데, 이 표어 덕분에 나는 누군가 교회에 와서 힘들 때 쉬는 방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더니 이루어졌다. 주일에 혹시나 힘든데 공동체에 있을 곳이 없으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우리가 없어도 마음 편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사무국 이윤희 권사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로마서 12 : 1	인도자
*예배의 찬송	19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이사야 48 : 9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28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미가서 6 : 1 - 8	설교자
성가대 찬양	295	사랑방
설 교	" 하나님의 변론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325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주님의 사랑이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이어직 이돈희/ 봉헌위원 : 정연갑/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저희에게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기도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변론

하나님의 변론. 미가서 6장에는 독특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으로 산과 언덕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변론을 펼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배심원으로 삼으신 것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좋은 제물을 생각합니다. 일 년 된 송아지에서, 정말 많은 제물들 그리고 자신의 맏아들까지 내어 드릴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물도 아니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임상희 권사

사랑의 넉넉함으로 자라는 아이

바쁜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가람이에게 물어보는 버릇이 생겼다.
"오늘은 학교에서 뭐하고 놀았어?"
쉼표도 없이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느새 내 얼굴엔 미소가 띄어진다. 때론 친구에게 서운했던 이야기를 할 때면 난 그저 고개만 끄덕인다.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

꾸러기학교를 알고 아이를 처음 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이렇게 좋은 학교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니 마치 예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가람이는 자존심이 강하고 관계에 예민하다. 우리 가족과는 다른 성향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할까 고민이었다. 다행히 지금은 모난 곳이 많이 깎이고 다듬어졌다. 소리치는 것도 줄어들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한다.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된 것은 아니리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가족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으리라 충분히 알 수 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에서 고민하던 주인공 마리아 수녀에게 원장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맴돈다.

"주님께서는 문을 닫으실 땐 어딘가에 창을 열어주신다.(When the Lord closes a door, somewhere he opens a window.)" 하나님께서는 가람 엄마를 하늘로 먼저 데려가셨지만 대신 여러 개의 창문을 열어 주셨다. 지금의 가족, 선생님들, 가람이 친구들, 학부모님들이 그렇다.

6.25 전쟁 중에 미국에 입양되어 워싱턴주의 상원의원까지 역임했던 신호범씨가 지극 정성으로 자신을 양육해주었던 양부모를 생각하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라며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난 우리 아이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로 자라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그리하여 자신이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쏟아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한다.
꾸러기학교는 그런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이다.
오늘도 나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곤히 잠든 아이를 본다.

꾸러기학교 이가람 아빠, 이성빈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지난 휴가기간에 고궁을 다녀왔다. 조금은 바쁘게 움직여 해설을 곁들인 창덕궁과 경희궁을 즐길 수 있었다. 창덕궁에서는 전각과 후원 해설을 듣고, 그 중 궐내각사와 낙선재는 따로 특별해설도 신청해서 들었다. 경희궁에서는 둘만 해설을 듣기도 했다.

궁이라는 공간은 독특하다. 왕이라는 존재는 드러내기 위한 갖은 장치로 사용된 궁, 세월 쌓이며 생성된 전통과 파격이 만든 시간의 지층인 궁, 그리고 그 시간과 역사와 예술과 현재를 바라보는 해설사의 궁이 어울려져 있다. 정문에서부터 자그마한 돌 하나도 어떠한 의미가 있다. 한정된 공간에서 왕의 위엄과 신하들에 대한 격려와 백성을 위한 다짐이 함께 들어가서 어우러졌다. 그걸 풀어내는 해설이 또 기가 막힌다.

총 5회에 걸친 해설을 듣느냐고 하루라는 시간을 쏟아냈지만 아쉬움은 없었다. 평소 필요한 정보는 알아서 찾는 성격이라 해설을 굳이 들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과는 대만족이다. 특히 해설을 통해서 나오는 궁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왕들 뿐 아니라 주변에 함께 관계하고 있던 이들의 삶을 가깝게 느끼게 해주었다. 공간과 시간, 해설이 공존하면서 고궁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다.

가서 보면 된다. 굳이 해설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나만의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고민하고 연구했던 이들의 해설이 담겼을 때, 죽은 고궁이 살아서 움직였다. 해설에 담긴 과하지 않은 친절이 죽은 고궁에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공동체에도 해설사가 몇몇 있으면 좋겠다. "와서 보라."라고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사랑방이 가진 의미와 방향성과 이유와 가치를 알게 해줄 해설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 아주 개인적인 사랑방 포인트까지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 사랑방 관람 포인트가 사랑방공동체를 사랑방공동체답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이돈희 선생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208장 342장
성 경 : 마태복음 25:23-30
말 씀 : 작은 것에 대한 신실함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전쟁의 피해자들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인근에서도 끊임없이 무장충돌이 발생하는 중입니다. 유혈을 흘리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국의 공동체들을 위해>
   1) 기독교 공동체들이 어려운 와중에도 힘과 뜻을 모아서 잘 연합하도록
   2) 각 세대가 잘 성장하여서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설 명절과 겹쳐져 찾아온 강추위에 큰 피해가 없도록
   2) 어린이학교의 졸업여행에 안전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설날을 첫날로 시작한 한 주였습니다. 공동생활 식구들도 고향의 부모님들을 만나 뵈러 가기도 하고, 집으로 방문한 친척들과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고향에 가지 않은 식구들은 영하 20도의 한파에 각처의 수도가 동파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여전히 흰 눈이 남아 있는 공동체는 강 추위에 맞서고 있습니다. 유난히 눈도 많고 추위도 드센 이번 겨울을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 장영미 전도사 >